시설공단, 사회복무요원과의 간담회 개최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 청취

2017-06-17 오후 12:41:53

마포타임즈 mapodesk@hanmail.net

(제공=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은 공단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고충과 애로 사항 청취를 위하여 6월 9일 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황중익 상임이사는 "여러분의 건의 사항은 검토하여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하고 "그동안 성실히 복무해준데 대해 감사하며 항상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책임감 있게 복무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공단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총 27명으로 거주자 단속 상황실과 견인보관소, 노상 주차장, 주민편익 시설 등에서 주차장 관리 및 거주자 단속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 휴게실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소집 해제자를 대상으로 임원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있으며 우수 복무요원을 선정하여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이 소속감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0공유

<저작권자©마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7-06-17 12:41 송고

http://www.mapotimes.co.kr/news.aspx/366252